

한국항공우주산업(주), 10월 1일 출범

대우중공업, 삼성항공, 현대우주항공 등 항공3사의 항공부문을 통합한 한국항공우주산업(주)가 10월 1일 설립됨으로써 국내 항공산업 발전의 새 장이 열리게 되었다.

항공3사는 10월 1일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자산 및 관련 사업을 양도하고, 신설법인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임인택씨를 선임하였으며, 충청로 본사(해동화재 빌딩 8층)에서 신설법인의 설립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거행하였다.

정부는 지난 4월 국무총리 주재의 항공우주산업 개발정책심의회에서 항공 통합법인을 국내 유일의 최종조립 업체로 지정하여 국내 항공산업을 육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항공 통합법인은 기존 한국형 전투기사업(KF-16), 기본훈련기사업(KT-1), 고등

훈련기사업(KTX-2), 경 정찰 헬기사업(KLH)을 담당함은 물론 향후 정부 사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항공 통합법인은 설립시 자산 1조 5백억원, 자본금 3천억원선으로 출범하고, 향후 채권단 출자전환 및 외자유치를 통해 부채비율을 100% 선으로 낮추어 건실한 재무구조를 갖출 예정이며, KF-16 추가 생산이 착수되는 2001년부터는 흑자로 전환하여 경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통합법인은 해외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세계시장진출 기반을 확충하고, 현재 개발중인 훈련기와 경 공격기 등 틈새시장에 집중해 국내 공급은 물론 세계 각국에 수출하는 한편 이들 기종의 개발을 통해 국내 소재 및 부품업체들을 육성할 계획이다.

우리협회, 창립7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우리협회는 창립 7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10월 19일(화) 섬유센터 대회의실에서 '2000년대 항공우주산업 육성전략'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최근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국가차원의 장기 육성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그간의 중복투자 및 과당경쟁을 지양하는 통합법인의 설립 등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우주산업계는 IMF 환란과 생산물량 부족 등으로 고사위기에 처해 있으며, 아직도 정부 및 유관기관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범부처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다. 이에 협회 창립 7주년과 단일 공동법인 설립을 계기로 항공우주산업 육성의 당위성에 대한 유관기관의 공감대를 조성하는 한편 항공우주산업의 장·단기 비전 제시와 산업계의 활로를 모색함으로써 다가오는 2000년대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강구할 예정이다.

오전 10시부터 개최식을 시작으로 '항공우주산업 육성정책과 기본계획', '항공우주산업과 국가안보', '항공우주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전략', '항공우주산업과 수요창출', '항공우주산업과 부품·소재 국산화'의 주제발표와 질의 응답이 있을 예정이다.

항공우주 무기체계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항공우주 무기체계 세미나 및 전시회가 지난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공군 주최 우리협회 주관으로 계룡대에서 개최되었다. 항공우주 무기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이론과 상호 기술교류 및 정보교환을 위하여 개최된 이번 행사는 국제 학술세미나와 항공우주 무기체계 전시회로 나누어 개최되었다.

9월 13일 개최식에서 박춘택 공군참모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방력에 긴요한 항공우주력은, 첨단 기술의 항공우주 산업기술이 끊임없이 뒷받침될 때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협회 추호석 회장은 축사를 통해서 “산업계는 앞으로도 군과 연구소 그리고 여러 외국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군에서 필요로 하는 최적의 장비를 공급하여 방위력 개선에 기여할 것이며 산업 발전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4, 15일까지 양일간 기지극장에서 “21세기 항공우주 무기체계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국내 15편 국외 14편 등 총 29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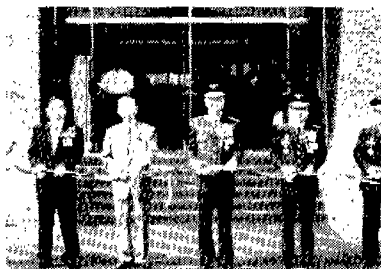
미 공군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하고 현재 보잉사 부사장인 John G. Lober 예비역 대장과 체신부 장관을 역임한 현 한국과학기술원 위성센터 명예소장인 최순달 박사가 논문을 발표하

여 참가자들의 주목을 끌었으며, 이밖에도 세종대 윤석준 교수는 ‘항공운항 안전을 위한 항공교통관제 체계의 시뮬레이션에 관한 연구’, 국방과학연구소의 유태선 박사는 ‘2000년대의 전자방어 기술’, 공군 본부의 김병용 대령은 ‘한반도에서 21C 항공우주군 역할’ 등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기지체육관에서 개최된 전시회에서는 국내 5개 업체, 해외 12개 업체, 군, 연구소, 대학에서 7개 기관 등 총 24개 업체가 참가하였다. 특히 삼성항공은 F-5E, 미스트랄 미사일 시뮬레이터를 전시했으며, LG정밀은 ALQ-88 장비, 공군은 기상용 위성수신장비 등을 전시하여 관람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한편 이번 세미나 및 전시회는 군, 연구소, 산업체, 학계 등 총 1,313명이 참관하여 항공우주 무기체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지난 97년 공군주최, 우리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던 전자전/모의훈련 세미나 및 전시회에 이어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도 항공우주 무기체계의 높은 관심이 보여짐에 따라 향후 발전된 행사가 기대된다.

(상세한 내용은 28p 참조)



항공우주 무기체계 세미나 및 전시회가 공군주최 우리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다목적 실용위성, 11월 20일 발사

국내 첫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1호'가 발사 로켓의 이상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은 오는 11월 20일 발사될 전망이다.

다목적 실용위성은 11월 3일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미국의 로켓 발사업체인 오비탈사가 최근 발사일 연기를 통보해 음에 따라 발사일은 11월 20일로 늦춰졌다. 이에 따라 11월 20일 오후 4시 16분(한국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될 다목적 실용위성1호는 발사일 49일전에 발사장에 입고해야 하는 절차에 따라 지난 30일 0시 대덕 연구단지내 한국항공우주연구소를 출발하였으며 항공기편으로 발사장으로 옮겨지게 된다.

항공우주연구소와 국내 7개 기업, 미국 TRW사

등이 공동개발한 다목적 실용위성 1호(중량 470kg, 높이 2.26m, 직경 1.4m)는 고도 685km에서 하루에 지구를 14번 선회하며 탑재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 한반도 정밀지도 제작, 해양자원 및 환경 관측 등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다목적 실용위성 제작이 완료됨에 따라 1m 가량의 해상도를 갖게 될 다목적 실용위성 2호 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다목적 실용위성 2호의 우주 궤도는 지상 6백 85km가 될 예정이며, 이 정도 고도에서 1m 이하의 해상도로 지상을 관측할 수 있는 초고정밀 위성 카메라를 포함하게 된다. 렌즈는 지름 60cm, 무게는 70kg쯤이며, 이 렌즈는 길이 3m 가량의 카메라에 부착돼 위성과 결합된다.

삼성항공, 러시아 울란 우데社와 헬기 판매대행 계약

삼성항공은 최근 러시아의 항공기 제조업체인 울란 우데(ULAN UDE)사와 중형헬기인 MI-171의 판매 및 정비대행, 기술도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판매활동에 나섰다. 삼성항공이 판매하게 될 MI-171헬기는 최대속도 230km, 최대항속거리 1,065km의 29인승 쌍발헬기로 전세계에 11,000대 이상 판매된 헬기업체의 베스트 셀러이다.

MI-171은 동급 파생기종중 유일하게 러시아 항공국의 인증을 받은 헬기로 외부 화물 인양능력이 4톤으로 국내에서 주로 사용중인 2톤급 소형헬기의 2배에 달하는 화물 수송능력을 가지고 있어 산악지역이나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의 공사현장으로

의 경제적인 화물운송이 가능하다. 또한 동 헬기는 로켓포 및 대전차용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어 유사시 전천후 군용헬기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MI-171 헬기의 판매가격은 5백만달러 수준으로 삼성항공은 "동급 경쟁기종인 유러콥터사의 수퍼푸마(13백만달러)보다 가격경쟁력이 우수하다"며 MI-171 헬기의 판매 호조를 예상하고 있다. 이번계약으로 러시아 헬기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원활한 부품 공급과 정비서비스 수행의 문제를 삼성항공이 보완하게 됨으로써 국내시장은 물론 향후 진출이 예상되는 동남아 시장에서의 판매 경쟁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란 우데사는 1939년 이래 Mig-25/Su-25 등의 최신예 전투기를 포함하여 수십기종의 다양한 항공기를 제작, 생산해 온 러시아의 항공기 제작사이다.

에어버스 컨소시엄, 단일사업체로 변신에 진통

유럽의 에어버스 인더스트리 컨소시엄의 참여국들이 컨소시엄에서 단일사업체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가운데, 합병을 눈앞에 두고 있는 DASA와 CASA는 이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고 있는 중이다.

6월에 있었던 파리에어쇼에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의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국의 컨소시엄 참여업체인 아에로스빠살 마트라, DASA, CASA, BAe에게 '올 여름'까지 에어버스 컨소시엄을 단일사업체로 변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서를 작성하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DASA에서는 아직 컨소시엄 구성업체간에 단일사업체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논의도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단일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독일 항공부 장관인 지그마이어 모스도르프가 지난 주에 파리와 툴루즈를 방문했다. 독일 신문들에서는 이를 놓고 독일 정부가 에어버스 인더스트리의 단일사업체 전환을 용이하

게 하기 위해서 DASA와 아에로스빠살 마트라간의 합병을 권유하고 있다고 논평하고 있다. 파리에어쇼 중에 각국 장관들은 A3XX 프로젝트의 자금지원 문제와 단일화 문제를 연결시켜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모스도르프 장관은 구조조정이 없을 경우 자금지원이 보류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CASA의 알베르토 페르난드 회장은 AMC(Airbus Military Company)의 A400M 수송기의 최종조립문제 때문에 DASA와의 합병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스페인쪽 소식통에 의하면 합병에 대한 최종협의를 수주 안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합병후에도 각 회사의 기득권이 있는 분야를 계속 수행한다는 것이 기본전략이기 때문에 CASA는 합병후의 새 회사에서도 군용수송기 분야와 복합재료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한다.

현대우주항공 보잉 717 날개 완제1호기 출고 기념식

현대우주항공이 미국 보잉사로부터 생산기술을 이전받은 보잉717의 날개 완제품 1호기를 완성하고 지난 8월 27일 '완제 1호기 출고기념식'을 개최하였다.

현대우주항공은 97년 9월 보잉사로부터 생산기술을 이전받아 그동안 중간조립단계 생산방식 7대, 세부조립단계 생산방식 3대 등 모두 10대의 717 날개를 납품하였으며, 날개의 주요 부품을 국내기술로

제작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에 생산한 완제1호기는 전체 9,800여개의 부품 가운데 전기원자재 등 일부 제품을 제외한 7,840개(80%) 가량을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 항공기 제작기술 축적은 물론 30%이상의 공정단축 효과가 기대된다. 중형 여객기인 보잉 717의 주날개는 길이가 28.48m, 폭 4.98m에 무게가 6.196kg으로 날개 1개당 납품 가격은 약 2백50만 달러이다.